

위기 없는 미래에셋, 비결은 상품 경쟁력



미래에셋자산운용 미국 법인 Global X의 EDOC ETF(원격의료&디지털 헬스 ETF) 광고가 뉴욕 나스닥 전광판에 송출되고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12개 지역에 15개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36개국에 펀드를 판매하고 있다. 해외 현지에서 상품을 판매해 이익을 벌어들이는 유일한 투자회사다. 국내에서는 미래에셋이 굴지의 금융 브랜드지만 해외에서는 미래에셋의 인지도 보다는 상품 경쟁력이 우선이다. 현재 미래에셋의 해외 설정 펀드 38개가 글로벌평가사 모닝스타에서 5성 등급(5 Star)을 기록 중이다. 모닝스타 5성 등급은 펀드에서는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며 3년 이상 운용 펀드 중 상위 10% 우량 펀드에 부여된다. 미래에셋은 글로벌 평가사 리퍼(Lipper)가 주관하는 리퍼 펀드 어워즈에서도 다수의 상을 받는 등 해외에서도 상품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상품 경쟁력

미래에셋은 독립 금융 투자 그룹으로, 운용, 증권, 생명, 캐피탈 등의 계열사 모두 각자의 독립성을 띠고 있다. 미래에셋의 독립 경영 체제는 각 사의 경쟁력을 강화해 온 근간이 됐다. 9천초원을 운영하는 해외 최대 운용사 블랙록과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 블랙스톤처럼 경쟁력 관점에서 세분화해 독립된 경쟁력을 갖출 예정이다.

상품 경쟁력을 위한 토론 문화

미래에셋은 박현주 회장을 포함한 수평적인 토론 문화가 정착됐다. 정기적인 부문별 주간, 월간 미팅 및 리서치 회의 이외에도 온라인 투자 전략 미팅 등 비대면으로 다양한 임직원들이 상품과 투자 전략에 대해 논의한다.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협업

미래에셋의 글로벌 15개 네트워크를 통해 상품을 운용한다. 현지의 생생한 리서치를 바탕으로 유기적인 전략 회의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다. 2006년부터 운용한 미래에셋글로벌다이나믹펀드는 한국과 미국에서 협업을 통해 24시간 운용된다. 한국에서 운용이 끝나면 미국에서 운용을 시작해 글로벌 시장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고 살핀다.

철저한 리스크 관리

대형 판매사들의 무분별한 해외 상품 판매로 인한 환매 중단 및 사모펀드 사태로 최근 2년간 금융권이 어지러웠지만, 미래에셋 펀드는 언급된 적이 없다. 20년 넘는 상품을 다시 투자자가 찾는 이유는 그 기간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투자원칙을 지켜 낸 것이 바탕이 됐다. 미래에셋은 경쟁력 관점,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고 기대수익과 함께 위험을 살피며 개인 매니저가 아닌 팀 어프로치로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한다. 이를 바탕으로 30여명의 리스크·컴플라이언스·감사 인력을 통해 관리된다. 국내 최대 리스크 관리 인력이다.

금융소비자보호의 가장 우선적인 원칙은 좋은 상품을 잘 파는 것으로, 경쟁력 있는 운용사와 판매사에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미래에셋은 다양한 우량자산을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공급해 왔으며 원칙을 지키는 투자를 통해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미래에셋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차별화된 경쟁력이 더욱 부각 될 것으로 보고 있다. ▼